

유관기관 동정

국회 산자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맹형규)는 지난 2월 18일 산자위 회의실에서 에너지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김창섭 서울산업기술대학 교 교수,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배성렬 아태법무법인 변호사, 주봉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최봉석 고려대학교 교수 등 7명으로부터 진술 내용을 청취했다.

먼저 김창섭 교수는 “에너지기본법은 국가에너지전체의 기본법으로 실천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원만한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안은 현실적인 반면 의원발의안은 이념적인 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본 법 취지에 사회적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술기본계획 심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보고 사항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호 사무처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법안으로 정부입법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입법안은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과는 14개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에너지기본법은 수급의 안정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안정성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영석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법에서 핵연료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 이용·안전 등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자력법 등 관련법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법 적용 시 에너지기본과 원자력법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자원부

GHP 제품검사 관련 처리기준 마련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GHP) 제품검사 관련 처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처리기준은 그동안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GHP)의 정밀검사는 가스안전공사, 제품검사는 한국냉동공조협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기관이 2원화됨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 및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는 2원화되어 있는 검사기관의 입장을 상호 조율하고, 가스의 통입이 있어야 만 가능한 제품검사의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적절히 적용했다는 것이다.

GHP는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냉난방시스템으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내에 있으며, 이번의 기준 마련으로 제품검사가 원활히 처리될 경우, 사용자의 불만사항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자부에서 확정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가스안전공사는 GHP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 2 공사의 완성검사 후 가스공급자는

가스엔진 등의 제품검사를 위한 가스공급 및 검사완료 후 가스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 3 한국냉동공조협회는 고압가스안전 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4-11-8조(정밀검사)의 각 검사항목에 합격된 “가스엔진 등”에 대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 4 GHP제품검사에 합격한 결과를 냉동공조협회가 공사로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확인하여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포럼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포럼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의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동향, 온실가스산출지침개발 사례발

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8개 업종별(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반도체, 자동차) 활동계획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또 금년 주요활동계획에는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국내 외 기후변화협약 대응사례 조사,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검토 및 자문, 업종별 국내 지원사업 발굴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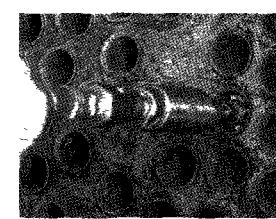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하여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연관 청소의 혁신!!

연관청소로 고유가 시대에 연료절감효과
정기적인 연관청소로 연료절감 효과 극대화



내부삽입형 세관기



연관 청소 장면

취급품목

- ◆ 기계사업 휴브크리너, 확관기, 휴브풀리, 베벨링, 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롤러브러쉬, 텐타브러쉬, 텐타핀, 각종 브리쉬제작
- ◆ 용역사업 덕트청소, 소각보일러 청소

태화인더스트리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센타 22동 343호
TEL 02)896-1729(代) FAX 02)6264-7729

www.taehwaok.com

